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특성 관련변인 탐색

최 윤 선¹⁾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안 재 진²⁾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변 미 회³⁾

백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권 지 성⁴⁾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본 연구는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을 파악함과 동시에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며,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특성 관련 변인을 탐색해봄으로써,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중앙입양원의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중단연구'에서 수집한 2015년 5차 양적 조사 자료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령기 입양아동·청소년 108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은 규준집단에 비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우관계문제 수준에 차이가 없는 반면에, 가족지지, 친구지지, 학교 만족도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특성 관련변인을 탐색한 결과, 가족특성 변인군만을 투입하였을 때 가족지지가 부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우관계문제의 8.3%를 설명하였다. 가족특성에 이어 학교특성 변인군을 추가 투입하였을 때 가족특성 변인군은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학교특성 변인군의 친구지지, 학교 만족도가 부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교우관계문제의 21.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연구결과를 토대로 입양아동이 건전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건강하게 성장, 발달하도록 돕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주요어 : 교우관계문제, 국내입양, 입양아동·청소년

1) 주저자 :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조교수

2) 교신저자 : 가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E-mail: jjahn@gachon.ac.kr)

3) 백석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부교수

4) 침례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국내 입양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관한 연구들이 조금씩 축적되면서 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관련된 실증적 연구들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08). 특히 입양아동의 사회성 발달 중 교우관계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사춘기에 접어들 무렵이면 아동의 교우관계의 질과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또래의 영향이 커지면서 교우관계가 한층 더 중요해지기 때문이다(송명자, 1995). 아동은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또래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음으로 또래와 효과적으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갖게 된다(장윤희, 문혁준, 2010에서 재인용).

특히 아동 후기와 청소년기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을 추구하고, 부모와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반면에, 친구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많아지게 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자신에 대한 고민을 친구와 함께 공유하며 친구에게 많이 의존을 하게 된다. 이러한 아동·청소년기의 교우관계와 그 경험은 청소년기 이후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구체적으로 온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아동·청소년기의 교우관계는 심리·정서적 건강과 성인기 개인 역량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스스로를 성찰하고 타인에 대해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적절히 관

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학교에 대한 태도 및 학교생활 참여도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미래 친밀한 관계형성의 기초를 마련해 준다(Bagwell, Molina, Pelham, & Hoza, 2001).

그동안 아동과 청소년의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개인특성 및 가정, 학교 환경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들이 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개인특성 변인으로는 자아존중감, 공격성, 정서지능, 거부민감성 등이 있으며(김미란, 2002; 송영명, 이현철, 오세희, 2010; 이혜미, 김유미, 2015), 가족요인으로는 부모와의 애착, 양육태도, 부모-자녀관계, 가족지지, 부모의 친구관계, 부부관계 등이 포함되며(김정화, 2015; 도금혜, 2008;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이시형, 김미영, 이세용, 2003; 이예직, 허일범, 2015; 임성택, 김나연, 주동범, 2010), 학교환경 변인으로는 학급풍토, 친구 및 교사의 지지, 교우스트레스, 학업성취(송영명, 이현철, 2011; 송영명 등 2010; 이점형, 2013) 등이 언급되고 있다.

특히 가족요인을 살펴보면, 송영명 등(2010)의 연구에서는 가정에서 자녀들과의 대화와 관계의 친밀 정도가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형성에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머니와 높은 신뢰감을 형성하고 아버지와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질 높은 교우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 또래 및 교사의 지지를 포함한 사회적 지지는 교우관계 형성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점형(2013)은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영재학생 812명

과 일반학생 819명을 대상으로 교우관계의 질에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결과, 영재학생의 경우,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인 평가적 지지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학급풍토의 응집성, 성별, 학급풍토의 경쟁성 순으로 교우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반학생들은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상호작용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급풍토의 응집성, 사회적 지지의 정서적 지지, 성별, 정서지능의 정서조절, 학급풍토의 난이성, 만족성 순으로 교우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혜미와 김유미(2015)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의 사회적 지지 가운데 친구지지 및 가족지지가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거부민감성과 교우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소연(2009)의 연구에서는 교우관계와 학교생활 만족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우관계가 좋을수록 학교생활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아동에 국한되어 있으며, 국내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의 4차 양적 조사(변미희, 최운선, 안재진, 권지성, 2012)에서 국내 입양아동 61명을 대상으로 교우관계문제를 살펴본 결과, 자기희생 하위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과관여 하위영역 및 전체 점수는 표준집단¹⁾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

났다. 한편 입양아동 특성과 입양부모 특성에 따른 입양아동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남아집단이 여아집단에 비해 교우관계문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과순응성과 자기희생 하위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관여 등 하위영역에서 남아집단이 여아집단에 비해 교우관계문제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입양아동이 인지한 입양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에 따라서도 교우관계문제에 차이가 있었는데, 의사소통 개방성 수준이 낮은 집단과 폐쇄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교우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연장아 여부, 입양유형, 입양공개범위, 입양된 형제자매 유무에 따라 교우관계문제 수준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입양부모 특성으로는 입양부모의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과 부모역량 중 방어성 수준이 높은 집단의 자녀들이 교우관계문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및 최운선(2015)의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5차 양적 조사에서는 입양아동의 학교폭력 경험을 분석한 결과, 친구로부터 때림을 당한 비율과 따돌림을 당한 비율이 각각 5.5%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김미숙 등(2013)의 한국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에서 제시한 비

현실적으로 통제집단을 선정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척도인 한국형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홍상환 등, 2009)를 이용하여 입양아동 집단과 표준집단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을 비교하였다.

1) 2012년과 2015년에 진행된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4차년도, 5차년도 양적 조사에서는

교집단(때림 19.5%, 따돌림 6.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의 15.5%가 입양사실로 인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외국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입양아동의 적응과 발달수준을 비입양아동들과 비교하거나 입양아동 집단 내에서 이들의 발달 및 적응수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실증적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09). 많은 입양인들이 청소년기에 문제를 경험하는데, 입양청소년과 일반청소년 간의 비교에서 입양청소년은 불법약물 사용, 부정적인 정서와 반사회적 행동, 낮은 학업성취 등 문제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Sharma, McGue, & Benson, 1996a, Sharma, McGue, & Benson, 1996b). 영아기에 입양된 10대와 입양가정 내 친생자녀인 청소년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입양청소년은 친생자녀에 비해 비행행동, 음주나 흡연을 더 많이 했고, 학업성적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Sharma, McGue, & Benson, 1998). 특히 입양 전 매우 불안정한 환경에서 성장한 연장입양아동의 경우, 입양 후에도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대인관계상의 어려움과 과잉행동 문제가 가장 크게 드러났으며(Rushton, Treseder, & Quinton, 1995), 청소년기의 이와 같은 심리사회적 발달상의 어려움은 성인기 발달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최운선 등, 2008).

하지만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를 직접 다룬 연구들은 아직 많지 않다. Ruth, Harold 및 Louis(1988)는 입양아동의 교우관계문제가 생애초기 안정애착의 결여, 또래와의 상

호작용에 대한 보호자의 방임 및 지도감독의 부재, 사회적 경계와 판단능력의 저하, 사회적 신호를 파악함에 있어서의 어려움, 충동성, ADHD 및 외현화 행동문제의 유병률, 정서조절 능력의 저하, 사회·정서발달의 지체, 갈수록 늘어나는 또래와의 접촉에서 사회적 의사소통과 언어 지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Ruth et al., 1988)는 또래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입양청소년 50명을 대상으로 또래관계 유형을 분석하였는데, 구체적으로 또래와 어울리지 못하는 유형, 적대적/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유형, 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피상적인 유형, 가깝고 긍정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이들 가운데 23명은 또래관계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르는 유형에 속하였으며, 친구에 대해 냉담하거나 거리를 두며 거절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편 15명의 입양청소년은 또래와 적대적/부정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고 타인을 교묘하게 조종하거나 신뢰로운 또래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대부분의 입양청소년들이 여러 위탁가정을 거쳐 입양가정으로 오게 되는 과정에 타인과의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보다는 일련의 거절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적대적인 방식을 습득한 것으로 본다.

같은 맥락에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또래집단에서의 인기도를 분석한 East(1991: 정옥분, 2011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도 인기 아동, 보통 아동, 고립 아동, 거부 아동, 혼합형 아동 5

가지 유형 가운데 또래와의 관계가 좋지 못한 아동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학교에서 중도 탈락하거나 이후 청소년 비행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이 입양인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사회성 발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양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입양부모 및 입양가족의 영향을 넘어 점차 접촉 대상이 확대되면서 또래집단이나 학교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의 교우관계는 청소년기 및 그 이후 대인관계와 사회적 적응의 기반이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을 파악하고,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특성 관련 변인을 탐색해봄으로써 국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 문제 수준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가족특성 변인인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지지는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학교특성 변인인 친구지지와 학교 만족도는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앙입양원의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의 2015년 5차년도 조사 자료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입양아동 1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응답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는 2015년 7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전국 각 지역에 있는 입양가정을 사회복지학과 아동복지학을 전공하는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입양아동·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은 남아가 44명(40.7%), 여아가 64명(59.3%)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더 많았다. 입양아동의 연령분포는 초등고학년이 45.4%, 중학생이 37.0%, 고등학생이 17.6%를 차지하며, 아동을 입양 당시 월령에 따라 생후 12개월을 기준으로 연장아 여부를 구분한 결과, 영아입양 집단이 79명(73.1%), 연장아입양 집단이 27명(25.0%)이었다. 입양유형은 친생자가 있으면서도 자녀를 입양한 유자녀입양이 78명(72.2%), 불임이 30명(27.8%)로 유자녀입양이 훨씬 높았다. 입양아동이 자신의 입양사실을 친구들에게 공개하는지를 살펴본 결과 공개한다가 55명(50.9%), 공개하지 않는다가 38명(3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입양아동의 거주지역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인천 지역이 48.1%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25.0%, 전라/광주 14.8%, 경상/대구 6.5% 순이었으며, 충청/대전 지역이 5.6%로 가장 적었다.

표 1. 입양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N=108)

	변인	빈도	백분율
성별	남	44	40.74
	여	64	59.26
학력	초등고학년	49	45.37
	중학생	40	37.03
	고등학생	19	17.60
연장아 여부	영아입양	79	73.14
	연장아 입양	27	25.00
	무응답	2	1.86
입양 유형	유자녀	78	72.22
	불입	30	27.78
입양사실 공개	공개	55	50.92
	비공개	38	35.19
	무응답	15	13.89
거주 지역	서울	27	25.00
	경기/인천	52	48.15
	충청/대전	6	5.56
	전라/광주	16	14.81
	경상/대구	7	6.48

2. 조사도구

교우관계문제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는 홍상황 등(2009)이 초등학교 4학년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 및 표준화한 한국형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Korean Inventory of Peer Relationship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64개 문항으로 지배통제, 자기중심성, 냉담, 사회적 억제, 비주장성, 과순응성, 자기희생, 과관여 8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

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 0점’, ‘약간 그렇다 = 1점’, ‘대체로 그렇다 = 2점’, ‘매우 그렇다 = 3점’의 4점 평정척도로 평가하게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우관계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원점수는 평균이 50이고 표준편차가 10인 T점수로 환산되어 표준집단 내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T점수, 표준 T점수, 편차 T점수가 제공되는데, 전체 T점수는 개인의 전반적인 교우관계문제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고, 2표준편차 이상으로 상승하면 표준집단에 비해 상당히 큰 불편감을 경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준 T점수는 영역별 심각도를 나타내주며, 교우관계에서 경험하고 있는 전반적인 불편감 수준을 평가한다. 또한 표준 T점수에서 전체 T점수를 뺀 차이점수를 환산한 값으로 개인이 가장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구체적인 교우관계 영역을 찾는 데 유용한 편차 T점수가 제공된다. 점수에 따른 수준 분류는 표준 T점수 기준에 따라 35점 미만은 ‘매우 낮음’, 35점 이상~45점 미만은 ‘낮음’, 45점 이상~55점 미만은 ‘보통’, 55점 이상~65점 미만은 ‘높음’, 65점 이상은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검사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6로 나타났다.

부모-자녀 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김미숙 등(2013)이 아동종합실태조사에서 활용한 후보호자 관계척도를 통해 측정하였다. 척도는 총 8문항으로 부모님과과의 관계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 = 1’에서 ‘매우 그렇다 = 4’까지

4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주보호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88로 나타났다.

가족지지

가족지지는 Zimet, Dahlem, Ziment와 Parley (1988)의 사회적 지지 인식에 대한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중 가족으로부터의 지지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4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으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0로 나타났다.

친구지지

친구지지는 Zimet et al.(1988)의 사회적 지지 인식에 대한 다차원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중 친구로부터의 지지를 측정하는 하위척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총 4문항 7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들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92로 나타났다.

학교만족도

학교만족도는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과 Joan Yoo(2013)가 한국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내가 다니는 학교', '우리 반 아이들', '나의 학교성적', '나의 학교에서의 경험' 4개 항목에

대해 만족하는 정도를 0점(매우 불만족)에서 10점(매우 만족)까지 11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Cronbach's α 계수는 .79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본 조사의 모든 분석은 통계패키지 SPSS Statistics 23.0을 사용하였다. 우선, 조사대상 아동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규준집단과의 비교를 통해 입양아동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입양아동의 교우관계문제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탐색하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교우관계문제검사의 8개 하위영역과 합계척도의 원점수는 표준 T점수로 환산하여, 규준집단의 평균인 50점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단일표본 t 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 하위영역과 합계척도 모두에서 규준집단의 평균인 50점보다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두 집단 간의 점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한 결과, 자기희생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척도와 합계점수가 규준집단

표 2. 입양아동 · 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N=108$)

척도명	최소 값	최대 값	표준 T 점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지배 통제	36	88	46.12	10.20	-3.95***
자기 중심성	34	90	44.36	10.27	-5.70***
냉담	36	79	46.62	10.34	-3.39**
사회적 억제	38	79	46.34	10.09	-3.76***
비 주장성	36	80	47.24	10.08	-2.84**
과 순응성	35	75	46.45	9.67	-3.81***
자기 희생	33	95	48.12	11.16	-1.75
과관여	34	70	44.47	8.65	-6.64***
합계 척도	31	85	45.30	11.04	-4.42***

보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타났다.

한편 표준 T점수를 기준으로 입양아동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을 분류한 결과, 17.6%(19명)의 아동들이 교우관계문제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정도가 높거나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나머지 입양아동들은 교우관계문제의 수준이 보통이거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보면, 자기희생 영역에서 빈도(25명, 23.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도 지배통제, 과순응성 영역 또한 빈도가 비교적 높았다(24명, 22.2%). 반면에 자기중심성(15명, 13.9%)과 과관여(16명, 14.8%) 하위영역은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입양아동 · 청소년 교우관계문제 수준 분포 ($N=108$)

척도명	수준 분류	35점 미만 (매우 낮음)	35점 이상~ 45점 미만 (낮음)	45점 이상~ 55점 미만 (보통)	55점 이상~ 65점 미만 (높음)	65점 이상 (매우 높음)
지배 통제		0(0.0%)	59(54.6%)	25(23.1%)	19(17.6%)	5(4.6%)
자기 중심성		11(10.2%)	56(51.9%)	26(24.1%)	10(9.3%)	5(4.6%)
냉담		0(0.0%)	56(51.9%)	31(28.7%)	13(12.0%)	8(7.4%)
사회적 억제		0(0.0%)	60(55.6%)	29(26.9%)	12(11.1%)	7(6.5%)
비 주장성		0(0.0%)	50(46.3%)	40(37.0%)	9(8.3%)	9(8.3%)
과 순응성		0(0.0%)	57(52.8%)	27(25.0%)	16(14.8%)	8(7.4%)
자기 희생		5(4.6%)	48(44.4%)	30(27.8%)	16(14.8%)	9(8.3%)
과관여		5(4.6%)	54(50.0%)	33(30.6%)	15(13.9%)	1(0.9%)
합계 척도		14(13.0%)	43(39.8%)	32(29.6%)	13(12.0%)	6(5.6%)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양아동 · 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차이

입양아동 ·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교급, 연장아 여부, 입양유형에 따라 교우관계문제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및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분석결과 입양아동 · 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는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학생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이 초등 고학년과 고등학생보다 조금 더 높기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차이

변인	구분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t값/ F값
성별	여	64	44.05	10.91	-1.42
	남	44	47.11	11.10	
학교급	초등 고학년	47	43.23	9.34	1.68
	중학교	38	47.66	12.45	
	고등학교	17	44.88	12.23	
연장아 여부	영아입양	79	45.42	10.14	-1.17
	연장아입양	26	45.85	13.81	
입양 유형	유자녀	77	45.62	11.64	.81
	불입	29	43.72	7.57	

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장아 여부에 따른 교우관계문제 역시 연장아집단이 영아집단에 비해 평균이 조금 더 높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입양유형에 있어서도 유자녀가정의 입양아동이 불입가정에 비해 높기는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3.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와 주요변인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우관계문제는 가족지지($r = -.25, p < .01$), 친구지지($r = -.39, p < .01$), 학교 만족도($r = -.33, p < .01$)와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 친구지지, 그리고 학교에 대한

표 5. 가족특성 및 학교특성 변인과 입양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 간의 상관관계 (N=108)

변인	1	2	3	4	5
1. 부모-자녀 관계	1				
2. 가족 지지	.61**	1			
3. 친구 지지	.25**	.54**	1		
4. 학교 만족도	.42**	.41**	.46**	1	
5. 교우관계 문제	-.05	-.25**	-.39**	-.33**	1

** $p < .01$.

만족도가 높을수록 입양아동의 교우관계 문제 수준은 낮아짐을 의미한다. 한편 부모-자녀 관계는 교우관계 문제와 유의미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결과를 토대로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 관련 변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입양아동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하기에 앞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판명하기 위해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각 독립변인들 간 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VIF 값 또한 1과 2 사이에 분포하고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특성 변인을 탐색한 결과 표 6과 같다.

우선, 가족특성 독립변인군을 투입한 모델 I에서는 가족지지가 입양아동·청소년의 교

표 6.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위계적 회귀분석 (N=108)

변인군	변인	모형 I			모형 II		
		B	β	t	B	β	t
가족 특성 변인	부모-자녀 관계	4.07	.181	1.48	5.15	.22	1.90
	가족 지지	-3.30	-.36	-3.01**	-1.34	-.14	-1.13
학교 특성 변인	친구 지지				-2.33	-.26	-2.23*
	학교 만족도				-1.42	-.25	-2.42*
상수							
F			4.72*			7.03***	
R ²			.083			.216	
ΔR^2			-			.133	

* $p < .05$. ** $p < .01$. *** $p < .001$.

우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beta = -.36, p < .01$), 교우관계문제의 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 = 4.72, p < .05$). 즉, 가족의 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은 낮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족특성 독립변인군에 이어 학교특성 변인군을 함께 투입한 모형II에서는 학교특성 변인인 친구지지($\beta = -.26, p < .05$)와 학교 만족도($\beta = -.25, p < .05$)가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설명력은 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가족특성 변인군인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지지는 학교특성 변인군을 투입하였을 때 교우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을 파악하고, 교우관계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특성 관련 변인을 탐색해봄으로써, 국내 입양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원의 '입양 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수집한 2015년 5차년도 조사 자료 중에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학령기 입양아동·청소년 108명의 응답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분석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은 규준집단과의 표준 T점수 비교와 문제수준의 분포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자기희생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하위척도 및 합계척도의 표준 T점수는 규준집단의 평균

인 50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이 전반적으로 규준집단에 비해 다소 낮으며, 대체로 건강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자기중심성(T점수 = 44.36점), 과관여(T점수 = 44.47점) 하위척도의 점수가 규준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데, 입양아동·청소년이 교우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친구의 입장이나 생각을 먼저 고려하고 배려하며, 다른 사람의 일에 쉽게 끼어들어 관여하는 대신에 적절한 경계를 설정 및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선행연구(Sharma et al., 1996a, Sharma et al., 1996b)에서 많은 입양인들이 청소년기에 일반 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와 반사회적 행동, 불법약물 사용, 낮은 학업성취 등 여러 문제와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소 다른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교우관계문제 수준에 대한 보다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본 연구에 참여한 입양아동·청소년들 가운데 45.37%가 초등학교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연령이 낮은 점을 하나의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표본의 대부분이 엠팩(한국입양홍보회)이라는 집단에 속한 공개입양가정의 자녀라는 점 또한 그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입양아동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엠팩의 모임에 참여함으로써 다른 입양아동들의 존재를 알고 그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이는 입양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최운선 등, 2008).

한편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

제 수준의 분포를 살펴보면, 17.6%(19명)가 교우관계문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자기희생, 과순응성, 지배통제 하위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변미희 등(2012)의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에서 14.8%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결과임을 발견할 수 있다. 자기희생 영역의 점수가 높을 경우, 자신의 권리나 관심을 우선시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지나치게 애쓰는 경향을 갖는다. 입양아동들이 자신의 욕구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더 중요하게 여기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선을 긋기 어려워 문제될 수 있다. 또한 과순응성 영역의 점수가 높을 경우,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유지하기 어렵고 너무 쉽게 설득, 이용당하며 지나치게 우호적이고 순종적이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거나 실망시키지 않으므로써 인정을 받으려고 하며, 지나치게 주장하면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자기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반면에 지배통제의 경우, 교우관계에서 자기주장만을 내세우고 다른 사람을 이해 및 배려하기 어려운 경향을 갖는다. 따라서 국내입양 아동·청소년들의 대부분은 건강한 교우관계를 형성하고 있지만, 일부는 자기희생 및 과순응적 성향과 지배통제적인 반대 성향으로 교우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교우관계문제의 유형에 따라 개인 및 집단상담의 형식으로 다양한 교우관계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함으로써 어려움을 경험하는 입양아동·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입양아동·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교우관계문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아가 여아보다 점수가 조금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중학생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이 초등학교 고학년과 고등학교에 비해 높게 나타났지만 이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아 입양여부는 영아입양 집단에 비해 연장입양 집단이 교우관계문제 수준이 높기는 하지만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다. 입양유형에 따른 교우관계문제 역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는 개인적 특성 및 입양관련 변인과 함께 가족 및 학교 등 주변 환경적 특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및 학교특성 변인들을 탐색한 결과, 우선 가족특성 변인들을 투입하였을 때, 가족지지가 교우관계문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지지의 수준이 높을수록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인데, 이는 입양부모 및 가족의 지지가 입양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특히 입양자녀들이 가족과 자신의 문제를 의논하고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도와주며, 정서적으로 지지해 줄 때, 즉 실제적인 지원과 도움을 받고 있을 때 교우관계에서 훨씬 문제를 덜 경험한다는 것이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이점형(2013)의 연구에서도 가족의 지지 중 정서적 지지가 교우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반면에 입양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적 측면은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송영명 등(2010)의 연구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와 관계의 친밀 정도가 아동의 교우관계 형성에 긴밀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주장과 다소 상반된 결과이다.

한편 학교특성 변인을 함께 투입하였을 때 가족지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에 학교특성 변인인 친구지지와 학교 만족도가 교우관계문제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특성보다 학교특성이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에 상대적으로 보다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자녀관계와 가족의 지지도 중요하지만, 친구의 지지 및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교우관계 더 중요하게 되면서 가족관련 변인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입양아동·청소년의 성장과정에 학교특성 관련변인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친구지지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 수준은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영유아기의 입양아동에게 입양부모 및 입양가족의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지배적이었다면, 입양아동이 성장하면서 또래와 학교환경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교우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에도 친구지지가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혜미, 김유미, 2015). 교우관계는 학교생활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이소연, 2009).

한편 국내 선행연구(안재진 등, 2015)에서 입양아동·청소년이 친구로부터 때림을 당한 비율과 따돌림을 당한 비율이 각각 5.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교집단 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역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조사대상의 15.5%가 입양사실로 인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이와 같은 괴롭힘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부모님과 선생님 등 가까운 성인에게 도움 요청하기, 놀린 친구에게 직접 이야기하기, 친한 친구 혹은 다른 입양아동에게 이야기하는 반면에 일부는 전혀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입양의 경우, 입양사실이 주위에 공개되기 때문에 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를 비롯한 학교현장 교육 종사자들은 입양아동·청소년의 원만한 교우관계 및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은 108명으로, 사례수가 비교적 적을 뿐만 아니라, 국내 공개입양부모들의 자조모임인 한국입양홍보회 회원가족의 입양자녀들을 중심으로 표본을 추출하였으므로 조사대상 선정에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전체 국내 입양아동·청소년에 일반화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는 국내입양 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입양가족 및 학교특성 변인들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후속연구를 통해 입양가족 및 학교특성

변인뿐만 아니라 개인, 지역사회 특성 변인을 포함한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들의 자아개념, 인지 발달,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의 양상, 사회적 관계에서 심리적 성숙도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에 등에 대해 추후연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의 입양실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주로 예비입양부모교육, 입양아동의 정체감 및 뿌리 찾기, 입양가족 적응을 위한 상담치료 및 사후관리가 주를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이를 넘어서 입양아동·청소년의 교우관계 및 대인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 학업스트레스 상담 및 진로지도 등 전문적 서비스들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미란 (2002). 청소년의 친구관계와 자아존중감.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전진아, 하태정, 김효진, 오미애, 정은희 . . . 김선숙 (2013). 아동종합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정화 (2015). 중학생의 부모애착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업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215-238.
- 도금혜 (2008). 청소년의 개인특성 변인과 가정환경 변인이 친구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1(3), 133-150.
- 변미희, 최운선, 안재진, 권지성 (2012).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2년 4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중앙입양원.
- 송명자 (1995).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송영명, 이현철 (2011). 한국 청소년의 교우관계 결정요인 분석: 자아개념, 부모관계, 교사관계, 교우스트레스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연구, 28(1), 91-112.
- 송영명, 이현철, 오세희 (2010). 초등학생의 교우관계 변화와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적 분석. 초등교육연구, 23(1), 65-86.
-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09). 국내 입양아동의 문제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개입양 아동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9, 187-219.
- 안재진, 권지성, 변미희, 최운선 (2015). 입양아동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 2015년 5차 양적 조사 결과 보고서. 중앙입양원.
- 이경숙, 서수정, 신의진 (2000). 학령기 아동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관계가 거부민감성 및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소아청소년정신의학, 11(1), 51-59.
- 이봉주, 김선숙, 안재진, Joan Yoo (2013). 한국아동 삶의 질에 관한 종합지수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세이브더칠드런.
- 이소연 (2009). 예술고등학교 무용전공 학생의 교우관계와 학교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시형, 김미영, 이세용 (2003). 청소년의 친구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모요인에 관한 연구. 삼성생명공익재단 사회정신건강연구소.
- 이예직, 허일범 (2015).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탄력성의 매개효과. 현실치료연구, 4(2), 1-19.
- 이점형 (2013). 정서지능, 학급풍토 및 사회적 지지가 교우관계 질에 미치는 영향: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비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혜미, 김유미 (2015). 초등학생의 거부민감성과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정서지능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24(4), 253-271.
- 임성택, 김나연, 주동범 (2010).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교사관계 및 교우관계의 관련성. 한국교육연구, 27(3), 23-42.
- 장윤희, 문혁준 (2010).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리더십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남아와 여아의 차이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7(2), 51-68.
- 정옥분 (2011). 아동발달의 이해. 서울: 학지사.
- 최운선, 안재진, 변미희, 권지성 (2008). 입양아동의 발달에 관한 종단연구II: 1차년도 자료의 사회성발달과 문제행동을 중심으로. 아동과 권리, 12(4), 473-502.
- 홍상환, 김종미, 안이환, 황순택, 유현실, 정혜원 (2009). 아동·청소년 교우관계문제검사 지침서. 학지사심리검사연구소.
- Bagwell C. L., Molina B. S., Pelham W. E., & Hoza B. (2001). Attention-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nd problems in peer relations: Prediction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40, 1285-1292.

- Rushton, A., Treseder, J., & Quinton, D. (1995). An eight-year prospective study of older boys placed in permanent substitute families: A research note.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36(4), 687-695.
- Ruth G. M., Harold D. G., & Louis A. Z. Jr. (1988). *Emotional disturbance in adopted adolescents: Origins and development*. Greenwood Publishing Group.
- Sharma, A. R., McGue, M. K., & Benson, P. L. (1996a).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of United States adopted adolescents: Part II. Age at adop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1/2), 101-114.
- Sharma, A. R., McGue, M. K., & Benson, P. L. (1996b). The emotional and behavioral adjustment of United States adopted adolescents: Part I. An overview.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8(1/2), 83-100.
- Sharma, A. R., McGue, M. K., & Benson, P. L. (1998).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United States adopted adolescents and their nonadopted siblings. *Child Development*, 69(3), 791-802.
- Zimet, G. D., Dahlem, N. W., Ziment, S. G., & Parley, G. 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1 차원고접수 : 2016. 04. 08.
수정원고접수 : 2016. 11. 13.
최종게재결정 : 2016. 12. 02.

An Exploration of Family and School-Related Variables Affecting the Peer-Relation Problems of Domestically Adopted Children in Korea

Choi, Woon-Sun¹⁾ Ahn, Jae-Jin²⁾ Byun, Mi-Hee³⁾ Kwon, Ji-Sung⁴⁾

¹⁾Dept of Child Welfare NamSeoul University

²⁾Dept of Social Welfare, Gachon University

³⁾Dept. of Child welfare, Baekseok University

⁴⁾Dept. of Social Welfare, Korea Baptist Theological University/Seminary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level of peer-relation problems of Korean adopted children and simultaneously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o explore the family and school-related variables affecting their problems. To achieve this aim, fifth-wave data from the Panel Study on Korean Adopted Children were used, and 108 school children above the four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were selected for analysis.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level of peer-relation problems experienced by Korean adopted children appeared to be lower than a control group. The level of peer-relation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upport from family and friends as well as their level of school satisfaction. The exploration of family and school-related variables showed that social support had negative effects on such problems only when accounting for family variables, explaining 8.3% of the variance. By adding school variables,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model was increased to 21.6%; support from friends and school satisfaction negatively affected their peer-relation problems, while family variables were found to be insignifica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ions are made to help with the building of sound peer relationship and for the healthier development of these students.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need for further research in this area are also discussed.

Keywords: peer-relation problems, domestic adoption, Korean adopted children